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20년 1월 14일

안녕! 우리말

국립국어원의 새해 인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원장 소강춘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쉼표, 마침표.」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1991년 개원 이래로 국립국어원은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인 국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 언어생활의 지침서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우리말샘』은 한국어 지식 자원의 보고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규모 언어자원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국어 연구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국어 말뭉치 18억여 어절을 올해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자원이 4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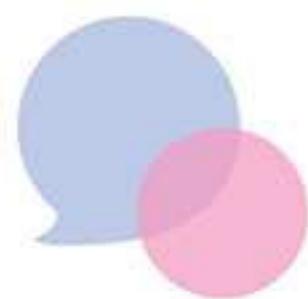
올해 국립국어원은 쉽고, 바르고, 아름다운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차별과 대립이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주요 언어로 한국어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언어자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지식 창출과 산업 활용에 우리 언어자원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2020년의 「쉼표, 마침표.」는 국어 전문 잡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올 2월부터는 독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어문규범이나 문법 지식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외래어에 상처 입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꼭지를 새로 선보이게 됩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누리소통망 전용 꼭지를 신설하고 동영상, 인포그래픽, 만화, 카드뉴스 등의 시각 자료도 다양하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쉼표, 마침표.」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올림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궁금한 우리말 ▶ 우리말, 그리고 사람

국립국어원은 언어 예절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만들었다. 이 안내서는 ‘틀렸다, 쓰면 안 된다’라고 여기던 기존의 호칭과 지칭까지 포용해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향한다. 이 연구를 함께한 박철우 교수에게 딱딱한 표준’의 탈을 벗고 ‘배려’와 ‘소통’이라는 부드러운 옷으로 갈아입을 새로운 언어 예절 이야기를 들어 봤다.



'어렵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명확한 기준으로 만든다

박철우 교수는 2018년에 국립국어원과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만들었다.

"국립국어원은 호칭어·지칭어·경어법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1992년 《표준화법》, 2011년 《표준언어예절》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호칭과 지칭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때만 해도 가족의 질서 유지가 강조되다 보니 비대칭성을 지닌 차별적 표현이 많았지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는 비대칭성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우 교수는 지금이 새로운 언어 예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식의 강압적인 규범 의식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배려와 소통 중심의 언어 예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호칭과 지칭의 대칭성을 맞춘 다양한 시도



"과거의 언어 예절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나치게 언어의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간여하는 셈이니까요. 다만,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써도 되게 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게 강요하던 것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열어 주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박철우 교수는 이번 언어 예절 지침 개발 연구에서 특히 호칭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내조’, ‘외조’처럼 남성을 ‘밖’으로, 여성을 ‘안’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했고, 배우자의 아버지를 ‘아버님’으로 높이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낮추거나,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을 구분해 부르는 것을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바꿨다. 또 ‘친정’이란 말 대신 ‘본가’로, ‘시댁’과 ‘처가’는 ‘시댁’과 ‘처가댁’ 혹은 ‘시가’, ‘처가’ 등 비대칭적이었던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바꾸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하며, 시가와 처가가 대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농경 사회의 대가족 제도와 집단 문화를 근원으로 하는 호칭과 지칭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어요. 그런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다 보면 과거의 낡은 질서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불러 주는 시대 올 것

우리나라는 호칭과 지칭이 복잡한 편이다. 박철우 교수는 그 이유를 한곳에서 오랫동안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왔던 집단성, 그리고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 찾았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서열 문화도 호칭과 지칭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다. 개인이 소속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서열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다.

박철우 교수는 지금까지는 성차별적인 호칭과 지칭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서열 문화가 힘을 잃게 된다면 나이에 관련된 호칭과 지칭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언어는 늘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며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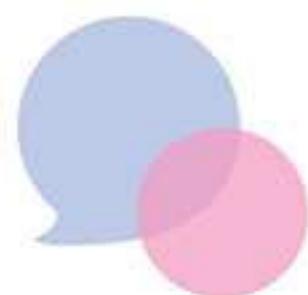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의 서문에 쓰기도 했는데…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훌의 고맥락·저맥락 사회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맥락 사회란 강력한 신분 사회라서 호칭과 지칭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맥락 사회는 훨씬 열린 사회예요. 기준의 호칭과 지칭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고맥락 사회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불러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봄 때입니다.”

박철우 교수는 호칭과 지칭의 선택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라고 말한다. 관계의 목적에 따라 호칭과 지칭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처 대표,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등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무엇을 팔기 위한 것인지, 목적에 따라 호칭과 지칭은 달라질 수 있다. 일종의 전략인 셈이다.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호칭과 지칭이 정답이겠죠. 아마 언젠가는 ‘뭐라고 불러 드릴까요?’ 라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서 원하는대로 불러 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 놀라운 우리말 ▶ 우리말을 여행하다

‘살결물’이나 ‘탄산단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살결물’과 ‘탄산단물’은 화장수와 탄산음료를 뜻하는 북한어이다. 남한어와 닮은 듯 다른 표현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70년 넘게 분단되어 지난 탓에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말의 뿌리는 같다. 분단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언어적 동질성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말을 잇다’라는 주제로 《겨레말큰사전》홍보관이 서울시청 시민청에 문을 열었다. 《겨레말큰사전》홍보관에서 우리 겨레말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자.



분단 이후 달라진 우리말을 한 그릇에 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우리말 사전이다. 남한과 북한의 규범어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아시아 등에서 해외 동포들이 쓰는 지역어까지 포함해 우리 겨레말을 한데 모으고 있어 그 의미가 깊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김완서 수석 연구원은, 《겨레말큰사전》은 어느 한쪽의 언어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 사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겨레말큰사전》은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 중국 등에서 25차례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했지만,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류가 끊어졌다. 약 9년 가까이 정치 문제로 교류하지 못한 까닭에 실제로 남북이 함께 사전 편찬 작업을 한 기간은 5년 남짓이다. 김 연구원은 북측에 거듭 연락을 해도 답신이 오지 않아 언제 회의를 재개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아니란다. 《겨레말큰사전》홍보관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겨레말큰사전》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말모이관과 해살이관에서 만난 남북의 말

《겨레말큰사전》홍보관은 ‘남과 북의 말을 잇다’라는 주제로 ‘말모이관’, ‘해살이관’, ‘내 생애 첫 평양친구’ 등으로 꾸며져 있다.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겨레말큰사전》편찬 사업의 역사와 사전에 실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말모이관’에서는 닮은 듯 다른 남한과 북한의 말을 살펴볼 수 있다. 뜻은 같지만 다른 표현들을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겨레말 오락관’과 ‘이렇게 달라요’가 있다. ‘겨레말 오락관’은 화면에 나타난 남한어와 북한어의 어휘 풀이를 보고 해당되는 단어를 맞추는 놀이이다.

‘이렇게 달라요’는 낱말 돌림판인데, ‘면접시험’, ‘스마트폰’, ‘생활기록부’ 등의 남한어가 쓰인 판을 돌리면 이에 대응하는 ‘인물심사’, ‘타치’, ‘생활평정서’ 등의 북한어가 나타난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언어 차이에서 가깝고도 먼 남북의 거리가 실감났다.



‘겨레말모이’에서는 남한의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바탕으로 입고 더한 《겨레말 큰사전》의 풀이 내용 일부를 보여 준다. 김 연구원은 《겨레말큰사전》에는 사용자의 이해를 돋고자 기존 사전보다 풍부한 용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있는 어휘라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 전문어, 외래어는 올림말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나, 수술할 때 집도자에게 수술 도구를 건네는 사람을 뜻하는 ‘기계수’는 북한에서, 맛이나 냄새가 약간 들큼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들척하다’는 남한에서 새로 찾은 단어이다.

또한 각각 ‘일식’과 ‘월식’을 뜻하는 ‘해개먹음이’와 ‘달개 먹음이’는 편찬 위원들이 직접 중앙아시아에 가서 동포들이 쓰는 말에서 찾아낸 것이다. 제시된 단어를 보고 같은 뜻의 남한어나 북한어를 골라 화면 속 농구 골대에 집어넣는 ‘겨레말 농구시합’도 재미있다.

김 연구원은 “남한어의 ‘어른답다’는 북한에서는 ‘어른싸다’라고 한다.”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홍보관 중앙에 위치한 승강기에는 남과 북의 언어가 함께 펼쳐져 있다. 그 앞의 바닥에는 겨레말을 품은 물방울들이 뒤섞여 움직인다. 마치 우리 겨레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 같다. 《겨레말큰사전》홍보관은 우리 겨레가 지금은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의 계례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 단 1시간 만에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이 성큼 가깝게 느껴지다니!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되면 우리 땅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 피어날지 기대가 된다.

‘해살이관’에서는 《겨레말큰사전》편찬 사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 중국 등에서 25차례의 공동편찬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 주었다. 전시장 한쪽에는 《겨레말큰사전》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인터뷰 영상 등이 방영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새로 찾은 겨레말도 살펴 볼 수 있다.



▲ 겨레말 농구시합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안내>

-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지하 1층 시민청
- 운영기간: 2019년 11월 26일 ~ 2020년 3월 31일
- 운영시간: 10:00 ~ 18:00
(법정 공휴일 및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관)
- 문의: 02-739-7773(시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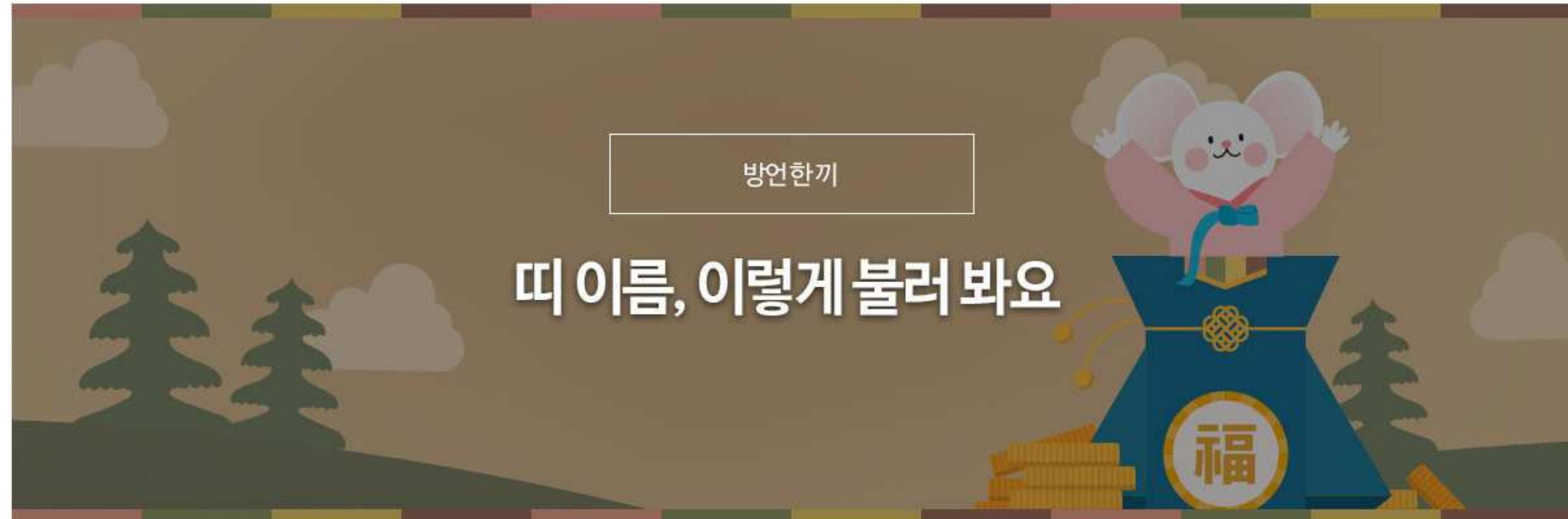
글·사진: 정성민
도움말: 김완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수석 연구원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띠 이름,
이렇게
불러 와요



2020년은 쥐의 해
'경자년'입니다.

새해를 맞아 띠를 나타내는
동물인 쥐, 소, 호랑이, 토끼를
각 지역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볼까요?





벵이

제주

주이

전남

지

경북

“쥐를 잡으려 하면 쥐덫을 놓아야 된다.”



세

경북

소

함북

우어지

강원

“저 집은 소를 다섯 마리나 먹인단다.”

호 랑 이



저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드랑께.(전남)

호래

충북

호랑이

전남

호리이

강원

“ 저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더란니까.”

토 끄



퇴깽이는 지가 홀랑개로 잡을라요.(전남)

태끼

강원

톳재이

경북

퇴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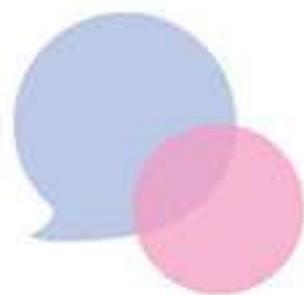
전남

“ 토끼는 제가 올가미로 잡을래요.”

福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20년 1월 28일



국립국어원은 2020년 2월 5일(수) 역삼 지에스(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공지능의 필수 지식 자원인 우리말 자료(말뭉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국내의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말뭉치 지식 강연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첨단 기기들이 우리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뭉치라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말뭉치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유로운 지식 강연회 형식으로 마련하였다.



행사는 ‘말뭉치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1부와 ‘말뭉치와 인간, 사회’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허스토리>를 연출한 민규동 감독과 주성철 평론가(전 씨네21 편집장)가 대담 형식으로 ‘말대꾸를 시작한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 속에서 사용되었던 말뭉치 관련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가 ‘인공지능에 말뭉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기게 한 주요 기술과 컴퓨터가 언어를 처리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인공지능을 완성시키는 언어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그동안 언어 자료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다루어 왔던 여러 방법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언어는 마음을 분석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주제로 언어 분석을 통해 인간과 컴퓨터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나!, 너... 우리?’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언어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얻은 우리 삶의 모습과 변화 양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의 강연 이외에도 우리말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작품들도 함께 전시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천계영 작가가 컴퓨터와 우리말로 대화하며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강생들(AI人, 성시경 조)이 만든 인공지능 기반 이야기 생성 시스템을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하여 [사전 신청](#)(선착순 200명)을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The book cover features a blue and white design. The title '우리는 코다입니다' is at the top in Korean, followed by '이길보라 / 이현화 / 황지성 저'. Below the title is the English title 'Children of Deaf Adults' in a stylized font. At the bottom, it says '소리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 사이에서'.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손말과 입말의 경계에서,
나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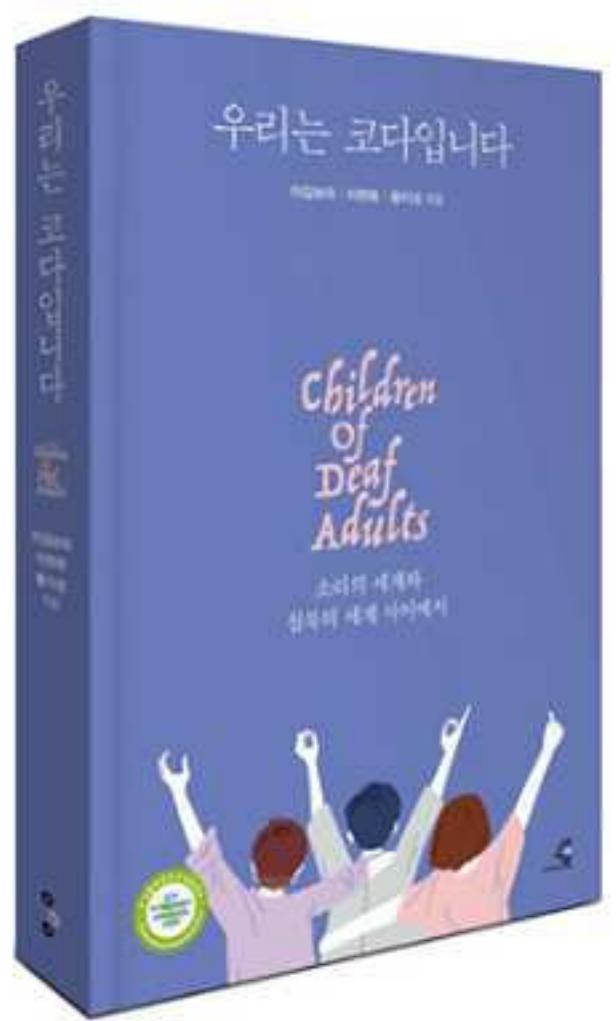
《우리는 코다입니다》 저자 이길보라 영화감독

▶ 궁금한 우리말 ▶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대체로 청인은 한국수어를, 농인*은 한국어를 모른다. 하지만 두 세계에 걸쳐 양쪽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를 뜻하는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이다. 코다인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말하는 책《우리는 코다입니다》의 저자 이길보라 영화감독을 만났다.

* 농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

작가이기도 한 이길보라 감독은 코다이다. 코다의 시선으로 농인 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4)는 개봉 후 큰 화제를 모았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 특별언급상을 받기도 했다.



▲ 『우리는 코다입니다』 표지
(사진 제공: 교양인 출판사)

동명의 영화를 책으로 펴낸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5)는 코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간된 책이다. 그런 이길보라 감독이 이번에는 수어 통역사,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으로 활동하는 다른 코다들과 힘을 합쳐 두 번째 책 『우리는 코다입니다』(2019)를 출간했다.

“한국에서 코다는 이름으로 첫 모임을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코다를 알리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저는 코다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코다 이야기를 했죠. 다른 분들은 강의를 하며 인터뷰를 하며 한국 사회에 코다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코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인터뷰나 강연 요청은 점점 많아졌지만, 저희는 사무국이나 직원도 없이 그저 네다섯 명 정도가 모여 만든 모임에 불과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모든 궁금증에 매번 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어요. 한국 코다의 삶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입문서를요.”



코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

다른 장애인들의 자녀를 칭하는 용어는 없다. 하지만 농인들의 자녀에게는 ‘코다’라는 이름이 있다. 이길보라 감독은 코다는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농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청인과도 농인과도 다른 삶을 사는 존재이기에 다른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길보라 감독은 코다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농인도 청인도 아닌, 혹은 농인인 동시에 청인이기도 한 그들에게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처음’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사회 사이에 있었어요. ‘처음’을 기억할 수 없는 게, 그게 아마 2~4살 사이의 유년기에 그 순간을 처음 마주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두세 살 때부터 통역을 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두 가지 언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걸 넘나들며 자랐어요. 엄마, 아빠 혹은 청인들이 통역이 필요하면 그걸 했고요. 다들 ‘처음’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기 경험과 고백을 바탕으로 책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농인과 청인의 삶을 넘나들면서 남다른 공감 능력을 키우며 살아온 덕분일까. 이길보라 감독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 가장 쉽다고 말하며 웃는다.

“이 책을 쓰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각 저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코다’라는 존재가 나 혼자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코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코다들이 있다는 것을 마주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세 명의 저자들에게도 그 순간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글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어요.”



▲사진 © 마틴 더 보스(Martijn de Vos)



수어, 농인의 언어 아닌 대한민국 공용어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공식 언어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실생활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이길보라 감독은 말한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대한민국의 공용어 중 하나는 한국수어이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생활에서 수어를 볼 수 있겠죠. 농인들만 수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어를 알아 두면 정말 편리하고 좋거든요. 입말보다 수어가 훨씬 효과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청인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코다입니다》를 읽고 수어 통역사의 꿈을 가지게 됐다는 중학생 독자의 소감이 있었다. 책이 농사회와 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청인들이 농인의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는데, 이길보라 감독은 무례한 질문 일 수 있다며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미국인에게 미국 문화를, 프랑스인에게 프랑스 문화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묻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말이다.

“저에게는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수어, 한국음성언어, 영어, 일본어, 영화 작업, 글쓰기 등. 결국 이 모든 것이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넘나들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저의 일이자 기쁨이에요. 그 언어들이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제가 즐기는 것이고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결국 사회와 문화를 배운다는 것인데,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며 다른 사람의 문화와 사회를 마주하는 경험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정말 다채로워지거든요.”

이길보라 감독은 2월 말, 두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기억의 전쟁> 개봉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을 다룬 영화다. 영화 속 주인공 중 한 명이 농인이다. 학살을 목격한 농인 주인공은 온몸으로 증언한다. 이길보라 감독은 농인 인터뷰 중 일부러 자막을 빼기도 했다. 자막과 통역 없이 그의 언어를 관객들이 온전히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오늘도 언어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글: 강은진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 놀라운 우리말 ▶ 찰나의 우리말

지난 글에서 필자는 같은 과에 재직하고 있는 제프리 홀리데이 교수와의 대화 덕분에 깨닫게 된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지닌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차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기회에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2019년 한글날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덕분이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한글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별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학술 토론회다. 서울시는 2019년에도 그 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다.



공공언어 외국인 차별

2019년 토론회의 주제는 공공언어에서의 차별 언어였다. 필자는 학술 토론회의 한 꼭지로 반드시 공공언어에서의 외국인 차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홀리데이 교수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이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필자의 의견에 공감했고 해당 꼭지의 발표를 홀리데이 교수에게 의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필자는 바로 전화를 해서 홀리데이 교수에게 학술 토론회의 발표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홀리데이 교수는 발표에 관심이 있지만 혼자 발표를 준비하는 것은 일정상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와의 공동 발표를 제안하게 되었다. 지난번 홀리데이 교수와의 대화로 인해 필자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생긴 데다가 마침 연구년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시간적 여유도 있었기 때문이다. 홀리데이 교수는 단독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필자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표한다면 할 의향이 있다고 반가워했다.

이렇게 필자는 공공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외국인의 사전적 의미

연구를 위해 우선 ‘외국인’의 뜻풀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외국인’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었다.

외국인: 1. 다른 나라 사람

2. 「법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사전에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 여부가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사전은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공공언어에 사용된 예들을 보면 사전의 뜻풀이와는 좀 차이가 있다.



외국인주민 통계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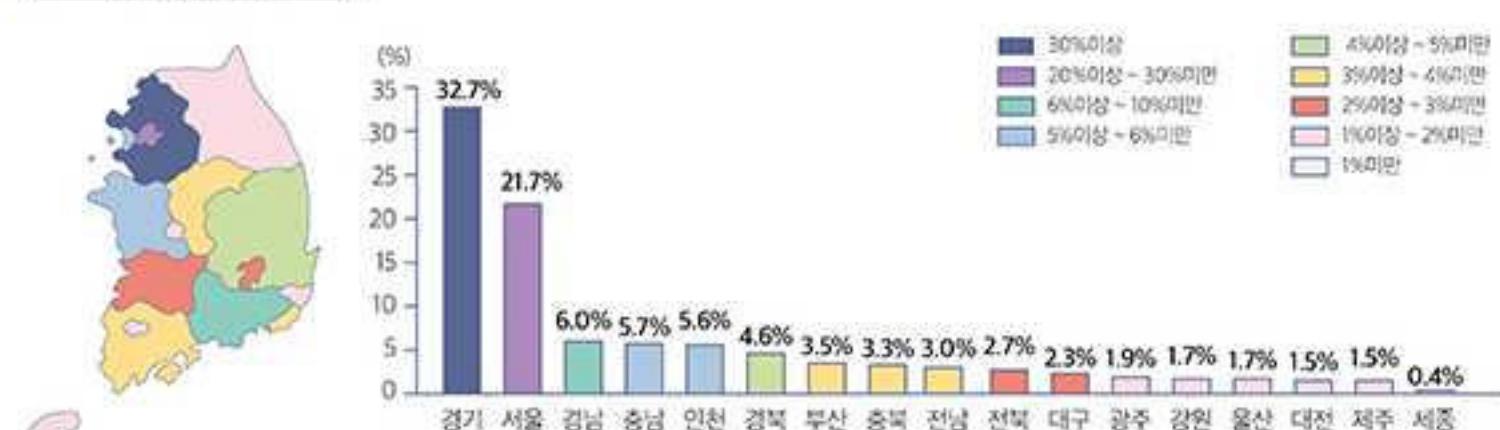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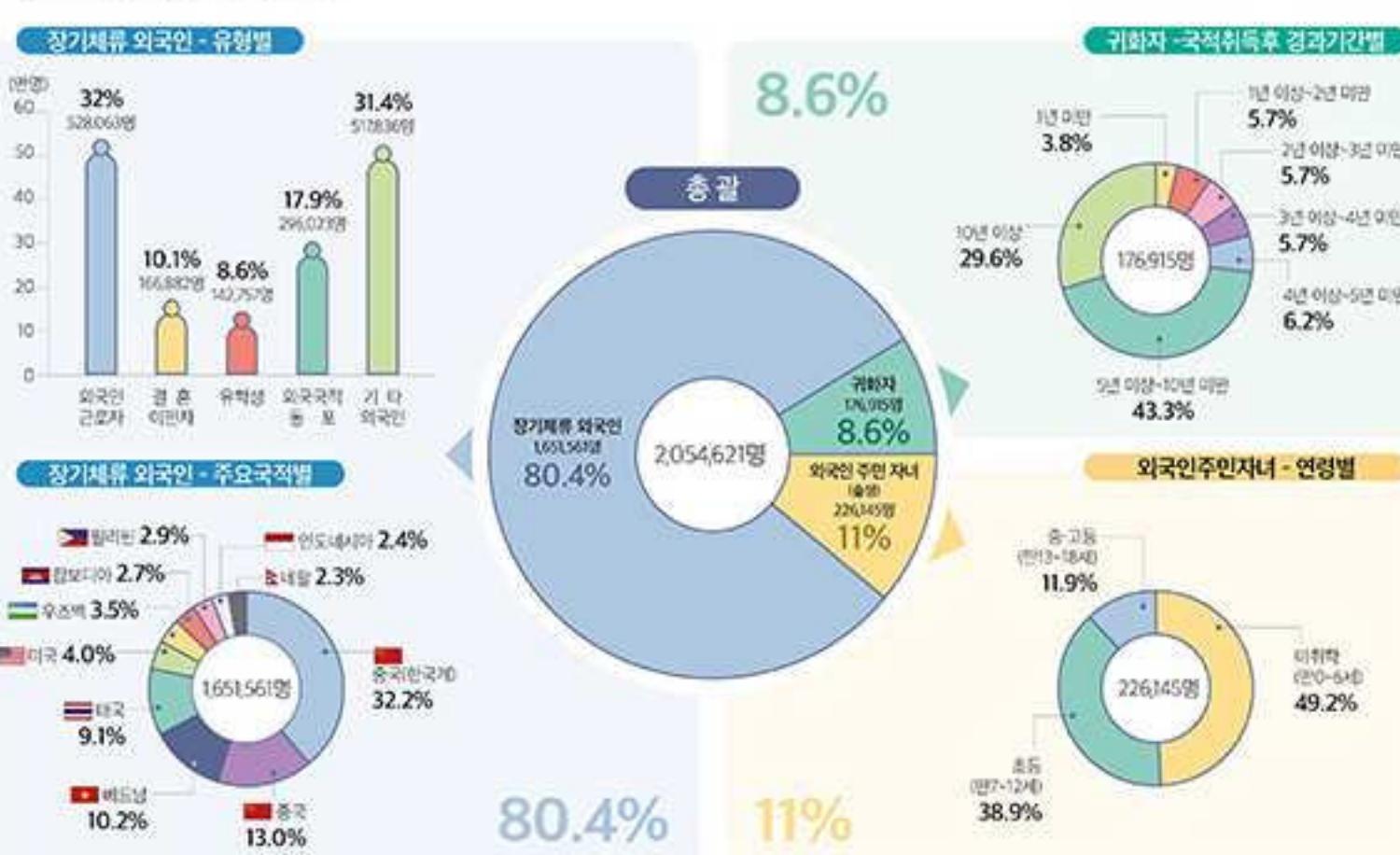
외국인주민 수



시도별 현황



세부 구성 현황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국인주민 통계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초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 및 그 자녀’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국적 취득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고 외국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나 귀화자의 자녀 또한 그들의 국적에 무관하게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 토론회 발표를 위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의 분류 기준을 확인하고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매년 이 통계 자료를 대하여 귀화자들과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느꼈을 차별과 소외감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몹시 부끄럽고 미안했다.

사실, 대한민국 국적자인 귀화자, 귀화자의 자녀, 결혼 이민자의 자녀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인주민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굳이 분류를 해야 한다면 이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의 범주 안에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외국인주민 통계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오류다. 그런데도 이 오류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특히,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외국인주민으로 분류되는 것은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는 그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인주민으로 분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외국인주민으로 보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을 외국인주민이라고 보는 한 이들에 대한 정책은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는 것은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공언어의 현황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공공언어를 바꾸어 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인', 꼭 필요한 단어일까?

학술 토론회를 준비해 가며 이르게 된 결론은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떤 집단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외국인을 외국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은 외모로 보았을 때 한민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 혹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다수가 지닌 외모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외국인’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다면 바로 ‘외국인’이라고 판단해 버린다. 이러한 생각은 외모가 다르거나 한국어가 서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편견을 고착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고착된 편견은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가 간 왕래와 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전 시대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외모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한국어 능력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판단이 쉽든 쉽지 않든을 떠나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야 할까? 굳이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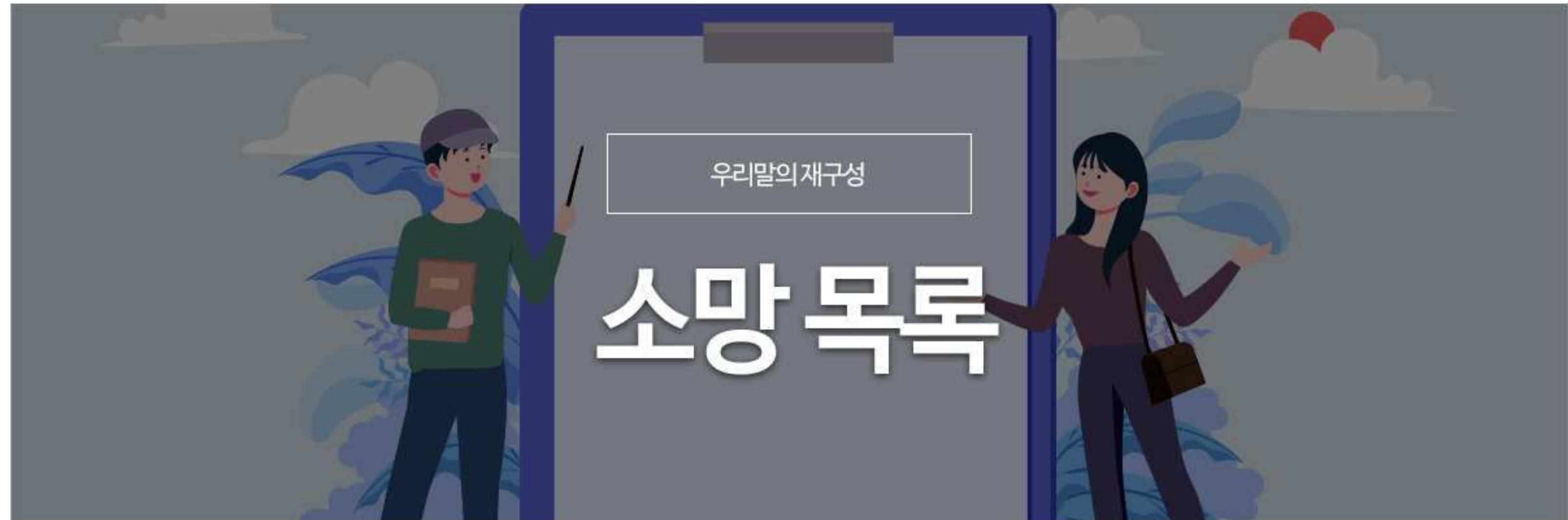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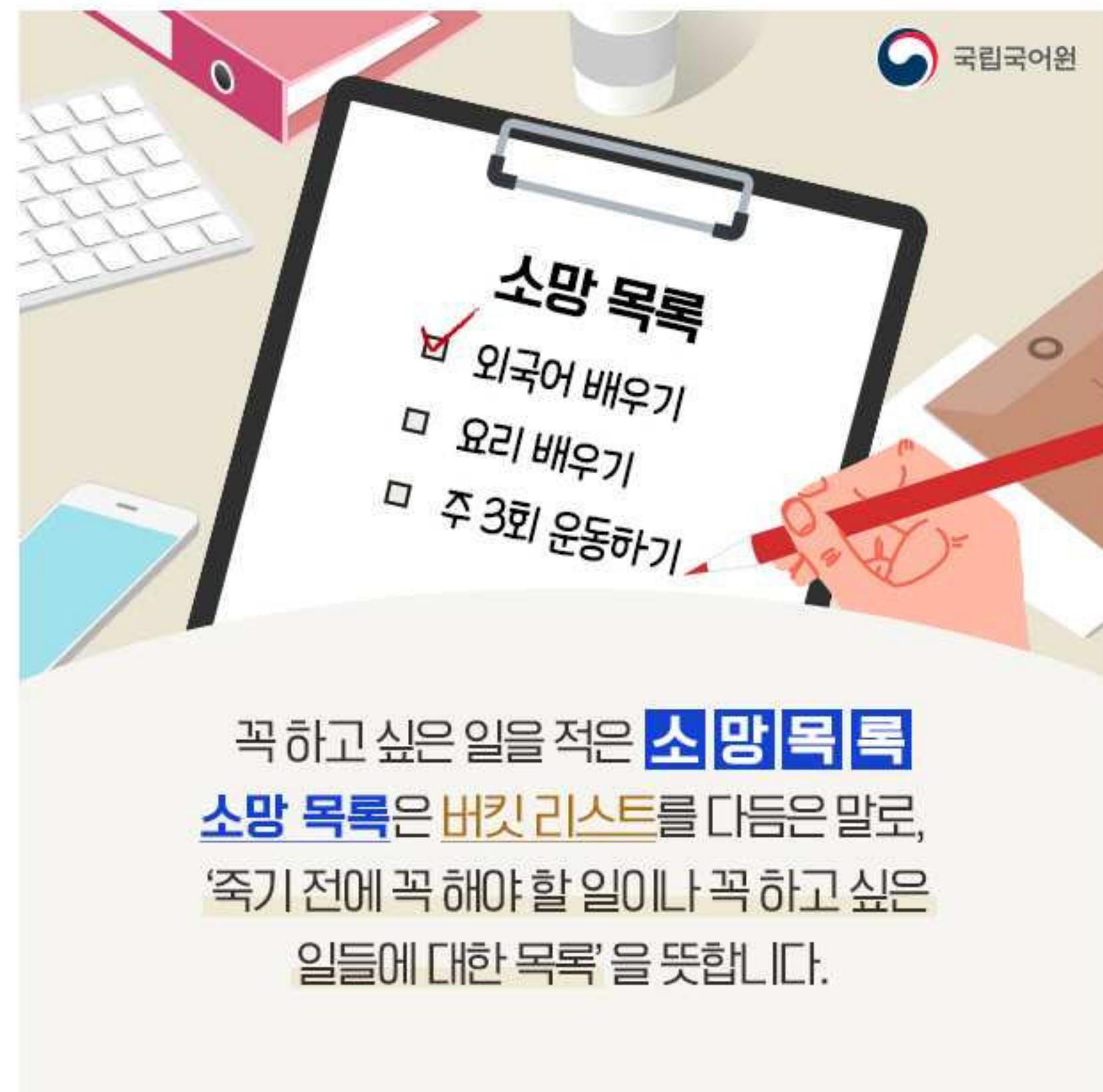
우리말의 재구성



▶ 쉬어가는 우리말 ▶ 우리말의 재구성









여러분도 소중한 우리말로
소망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